

01 교회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행사’ 및 ‘2018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가 초청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국 위상을 높였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변함없이 믿으며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영광 돌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교회 개척 때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선교의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은 우리 교회.

04 간증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김선민 형제와 질병 등 각종 문제를 해결받은 영국 줄리아나 나무카사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40호 2018년 5월 2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8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 건국 70주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과 독일 March of life(생명의 행진) 단체가 주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도 초청받았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리블린 대통령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정보통신부장관 외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GOD TV와 독일방송을 통해 생방송되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은 5월 13일, ‘2009 이 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의 개최 장소인 예루살렘 ICC에서 있었던 오프닝행사에 VIP로 참석했다. 14~15일에는

국회 방문과 VIP 컨벤션 참석 등 각종 만남을 통해 김진홍 장로(GCN방송 국장)가 인사말과 더불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의 선교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파워워십팀의 한국 전통 부채무용 갈채 15일 저녁에는 피날레 행사로 술탄 폴야의 공연장에서 갈라 페스티벌(Festival of Life)이 열렸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파워워십팀은 한국 전통 부채무용으로 연신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1~3).

“이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공연팀 중 단연 최고였다.” “처음 보는 황홀한 공연이었다.”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등 많은 찬사가 이어졌다.

한편, 5월 12일에는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이 연합하여 개최한 ‘2018 이스

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영광 돌렸다. 이 행사는 GCN방송과 TBN 러시아, CNL, 인빅토리, CMTN 방송을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다.

현장에는 율리아 슈트라이임 하이파 부시장을 비롯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러시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에서 참석한 1,300여 명이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웠고, 탈리 플로스코브 국회부의장 및 여러 국회의원들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와 오랜 렘아리 목사(예루살렘 영광의 왕 교회)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 행사에서 김진홍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사진 8).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

팀은 두 차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솔로와 회중 찬양은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새 힘과 위로를 주었으며, 파워워십팀의 부채무용은 황홀함과 감동, 이스라엘 민속 무용과 총명한 위십은 행복과 충만함을 더해 주었다(사진 4~5).

특히, 한주경 찬양선교사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를 부를 때에는 모두가 기립하여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이스라엘 찬양팀들과 미국, 러시아, 라트비아에서 온 공연팀이 은혜를 더했다(사진 6~7).

18일에는 예루살렘 영광의 왕 교회에서 열린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집회 시 선교팀의 공연에 이어 김진홍 장로가 ‘성령의 역사’(행 2:1~4)라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7)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만민중앙교회는 1982년 7월 25일,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이 미처 완공되지 않은 10여 평의 성전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 그 해 10월 10일 창립예배를 드린 때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 곳곳에서 대형 연합성회를 개최하여 권능의 역사를 나타냄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며,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10여 권의 책자와 33개 언어로 제작된 신문을 통한 문서 선교, 치료 사역을 의학으로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전 세계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종과 일꾼을 양성하는 MIS(만민국제신학교) 등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 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변함 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작다 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므로 능히 주 안에서 이를 수 있는 목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습니다(빌 4: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

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올 수 있었지요. 그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 11:1) 한 대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실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함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자신의 생각이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변개함이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결국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아무 행함 없이 저절로 그 비전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길을 알려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모든 훼방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6~37절에 “... 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후 지금까지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으며 갈수록 더 뜨겁게 불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짙은 안개가 낀 것 같고,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개가 사라져 갈 길이 보였고, 산과 같은 장애물이 옮겨졌으며, 강물은 말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지요.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해 한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 되었음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한 대로 응답이 오기까지 묵부암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처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결국 영광스럽게 응답해 주셨지요.

이처럼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는 신앙 안에서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었다가도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치고 가면 그 동안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좇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익게 하시는 분은 결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목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국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국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 편에서 행할 바를 최선을 다해 행하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단돈 7천 원으로 교회를 개척해 전 세

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하는 지 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넘치게 이루어 주셨지요.

2000년도부터 해외 성회를 이루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를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목회자도 없었고, 어느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예비 된 사람들을 통해 성회를 이뤄주셨으며, 나라마다 국영방송이나 여러 TV방송이 동원돼 성회를 중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홍보하시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 때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리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성경이 참임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방송을 통해 성회에 참석하여 기도받은 사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오직 순종함으로 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대라 해도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은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다



1982년 교회 개척 당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선민 이스라엘에

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복음의 회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선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변함없이 기도해 온 결과, 교회 개척 25주년을 맞은 2007년 7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첫 집회를 하였다(사진 1).

이후 3년간 12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이파, 베들레헴(사진 2), 아쉬도트(사진 3), 예루살렘, 아쉬켈론, 브엘세바, 텔아비브, 나하리야, 하데라, 아플라 등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이 목사는 기도를 통해 암, 심장병, 우울증 등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을 전했고, 이는 이스라엘 최고위층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스라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 있으나 국민의 대부분이 유대교인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선교팀이 이스라엘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었고, 목회자들조차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반문할 정도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선교를 통해 큰 힘을 얻은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을 결성했고, 2009년 9월 6-7일에는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초청, 연합대성회를 개최하여 예루살렘 심장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현장에는 메시아니즘(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참석하였고,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전파되었다(사진 4~7).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날이 갈수록 복음의 열매가 알아야 맺혀가고 있다. 매년 크리스탈포럼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 세미나 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소속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에는 14개 지교회와 19개 협력교회가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스라엘 선교를 오직 믿음과 사랑, 권능으로 이끌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김선민 형제 (22세, 2청년선교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워낙 좋았고, 성장하면서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어긋난 행동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퇴학 빼고는 모든 징계를 다 받아보았고, 그러다보니 공부와도 거리가 먼 생활이었지요. 시험 시간에 잠을 자서 빵점이나 나온 적도 많았고, 성적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 5월 16일, 그동안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안타까이 호소하시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그날도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기도를 올려 주시는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진실한 사랑이 마음에 전달되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제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시간 설교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기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의 관심 밖에 있던 공부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부는 거의 처음 하는 수준이라 처음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지만 3학년 때에는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수학능력시험은 잘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즐거움과 가능성을 맛보았기에 감사했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재수를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쭙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을 스마트폰에서 2G폰으로 바꾸고 친구들과 연락도 최대한 자제하며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일요일에도 학원에서 공부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저녁예배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학원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났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당회장님의 기도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늘 저희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며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믿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항상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6년 겨울 수학능력시험에서 상위 3%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둬 2017년 K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대학에 입학한 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제가 생각한 만큼 신앙생활에 열심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1일 당회장님과 가족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회장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그동안 죄에 무뎠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충만히 찬양하며 기도하니 기다리셨다는 듯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성장했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달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를 변화시켜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혈압, 알코올 중독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열네 살 때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고, 결혼 후에는 유산의 아픔으로 폭음을 일삼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했습니다. 더구나 죽을 것만 같고 미칠 것만 같은 생각이 끊이지 않아 고통을 받았지요.

작은 소리에 민감해 사소한 일에도 놀라고 화를 내니 가정이 늘 다툼으로 불화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괴로워 하나님께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곤 하였지요.

2017년 9월, 친구 집에서 기도회가 있다고 하여 참석했는데 제인 음플로고마 선교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권능의 목회

자이시며, 그분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과 무안단물(출 15:25)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난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일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어느덧 주일이 되어 런던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뒤 주일이면 런던만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선교사님으로부터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저를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져 화평한 가정이 되었으며, 고혈압과 알코올 중독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변화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고, 남편과 아들은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요.

런던만민교회를 만난 지 4주 만에 제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 안에



줄리아나 나무카사 성도 (44세, 영국 런던만민교회, 왼쪽에서 세 번째)

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당회장님을 만나게 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03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성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